

뉴스 프로그램의 고질병에 관한 진단서

엄 민 우

들어가면서..

19세기 영국의 사회 비평가 매튜 아놀드는 언론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한다.

“언론은 급박해진 문학이다.”

아마도 실세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그래야만 하는 성질을 가진 언론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지금도 여전히 언론은 급박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각지의 사건들이 급박한 문학으로 만들어 지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런 ‘급박해진 문학’이 ‘천박해진 문학’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사회를 감시하고 이슈를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명을 띄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언론이 점차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성급해진 문학’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함으로서 언론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도박을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리고 또한 무책임한 모습의 중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 불리는 방송이 있고 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이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무엇이 현대 언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뉴스를 하향 평준화 시켰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시청률’에 목매는 방송관행과 ‘신속성’에 눈멀어 ‘정확성’을 괘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필자는 여기서 올 2004년에 일어난 몇몇 사안들을 통하여 그 동안 우리의 뉴스 프로그램이 보여주었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자극적, 선정적 보도’와 ‘북한

관련 무책임한 추측 보도'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방송뉴스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사건? 건수?

- '유영철 사건 보도' 와 관련하여 드러난 우리 방송뉴스의 문제점

얼마 전 '희대의 연쇄 살인마' 라고 불리는 '유영철' 이 검거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었다.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는 또 다른 피해자들, 잔인한 범행수법, '돈' 이나 '원한' 이 목적이 아닌 '살해를 위한 살해' 라는 범죄동기 등은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한데 희대의 살인극에 놀란 우리는 방송 뉴스의 보도태도에 있어서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방송사라 할 것 없이 KBS, MBC, SBS 방송 3사 모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특집' 으로 하루 뉴스를 거의 다 채우는데 정신이 없었고 시신을 클로즈 업 하여 보여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부적절한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마치 '누가 더 자극적인 보도를 하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시청자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한 전무후무 한 수준의 범죄였기에 더더욱 그 사건에 비중이 있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과연 저렇게까지 범죄보도를, 그것도 특집으로 방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설사 사건의 특성과 비중으로 보아 그러한 투자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통감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이러나지 않게끔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적 뉴스' 가 되었어야 옳다. 범인에 대한 세세한 정보, 되풀이 기 식 자세한 사건개요, 뻔한 주변반응, 사체발굴 과 같은 것들로 거의 한 시간을 채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모처럼의 자극적인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보려고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또한 보도에 있어 자극적인 화면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고질적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특히 '뉴스속보' 에서는 아예 카메라를 마치 몰래카메라 처럼 발굴 작업 현장에 고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감을 살리려 했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청자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사체발굴 작업을 볼 필요성이 있을까? 그것이 뉴스가 말하는 ‘알 권리’ 라면 나는 차라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

매년 사건사고에서 보여주던 자극적인 표현 역시 어김없이 등장했다.

“토막난 시체가 쏟아져 나오는..”

“이곳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화장실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잘라..”

“숨진 안씨의 손목을 잘라버리고 바다에 던지고 차에 불을 질러..”

뉴스보다는 ‘서스펜스 소설’ 에서나 더 잘 어울릴법한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속에서 시청자들의 ‘흥미끌기 ‘와 ’ 말초신경 자극 ‘ 외의 다른 목적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분명 피해자의 가족들도 방송을 보았을텐데 저러한 표현들이 슬픔으로 명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더 못을 박았을런지.. 우리 방송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사실 이번 유영철 보도와 관련하여 드러난 저러한 문제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 보도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라크 전쟁’ 때 역시 화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까지 써가며 소중한 목숨이 죽어가는 전쟁을 게임과 같이 보도한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데 이번 유영철 사건과 더불어 우리 방송뉴스가 보여준 모습은 반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쩌면 이번 유영철 사건은 더욱 자극적인 뉴스거리에 목말라 있던 우리 뉴스에게 있어 ‘끔찍한 사건’ 이기 이전에 ‘괜찮은 건수’ 였던 것은 아닐까?

장님뉴스의 코끼리 만지기 식 북한보도

– ‘용천역 폭발사고’ 와 ‘량강도 폭발사건’ 과 관련하여 드러난 방송뉴스의 문제점

우리 방송뉴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책임한 추측보도’ 이다. 특히 취재의 손을 뺏기에 힘든 위치에서의 사건이나 사고들은 저러한 무책임한 추측보도가 양성되기에 더 없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북한관련 사건 사고보도를 빼 놓을 수가 없다.

예전에 비해 북한이 세상에 문을 많이 열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들을 알기 힘들며 어쩌다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fact' 일뿐, 그 배경까지 알기는 참으로 힘든 게 현실이다. 한데 우리 방송뉴스는 그러한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는가?

올 한해 북한과 관련하여 큰 사건이기도 하였던 ‘용천역 폭발사고’ 와 ‘량강도 폭발사건’ 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2004년 4월 22일, 북한 평안북도의 용천역 에서는 열차가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반경 2km까지 피해를 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신속성’ 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방송은 곧 너도나도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한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방송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런저런 설을 내보이며 추측을 사실화 하는 듯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9월 23일 방송분) KBS 9시 뉴스에서는 ‘열차충돌이 원인’ 이라는 제목과 함께

“정부는 사고 원인을 두 열차가 충돌한 것으로 파악했다” .

“사고 현장을 다녀온 국제적십자사 관계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며 밝혀지지도 않은 사고원인에 대한 설을 기정 사실화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고 같은 날 방송분의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테러 때마다 질산폭탄’ , ‘테러인가 사고인가’ 라는 기사제목과 이번 사건을 테러와 연관시키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보도내용은 ‘테러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부의 견해’ 라는 식으로 테러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하긴 하였으나 테러일 가능성이 적음을 알면서도 저러한 기사제목과 함께, 그것도 두 가지나 이어서 ‘테러’ 와 관련한 기사 보도를 다

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테러관련 의혹을 상기시키기에 충분 하였다. 이뿐 아니라 MBC 는 ‘북한 경제 휘청 ‘ 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이번 사고는 또 북한 경제 개혁 작업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룡천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경제특구 건설이 대폭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등의 성급하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 보도에 있어 우리 뉴스의 이런 성급한 태도는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온 고질적 인

문제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고질병은 몇 달후 발생한 “량강도 폭발사건” 과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그 병세를 드러내었다. 럡강도 관련보도 에서도 역시 몇 달전 범했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 하였다. 이번에는 추측성 기사가 극에 달해 심지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까지 언급하며 심하게 ‘오버’ 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하였다.

KBS9뉴스 는 9월 12일자 방송분에서

“핵 실험이 아니라 해도 단순사고로 보기에선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폭발장소와 시기, 모두가 상당히 미묘하다”

“단순폭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사고현장인 김형직군 일대가 대규모 미사일 기지와 지하군사시설 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거나 군수공장 또는 지하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일 가능성도 높아”

“사고 시점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외신보도가 있을 후 나온 시점과 일

치하는 것도 단순 사고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

“북한은 지난해 핵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해 왔고 핵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해 왔기 때문”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가장 큰 협상카드였다는 점에서 6자회담 강경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핵실험을 가장한 사고일 수도 있다는 것”

등 정보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혹들을 내비춰 보였다. 끝에는 ‘단순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 이라는 한 줄짜리 멘트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오히려 강력히 핵과 관련시키며 의혹을 제기하다가 내보낸 터라 더욱 뉴스의 모순된 모습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MBC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방송분 MBC 뉴스데스크 에서는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상 첫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징후를 포착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일부 정보관계자들은 핵실험이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뭔가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기는 했는데 그게 핵실험 준비인가를 놓고는 정보 당국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는 게 현재의 상황”

이라며 바로 전 기사보도에서 “핵실험은 아닌 것 같다” 고 말한 엄기영 앵커의 발언을 무색케 했다. ‘핵실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멘트와 ‘핵실험 준비 징후’ 라는 기사제목이

공존하는 뉴스, 추측에 눈이 멀어 방향조차 명백히 하지 못하는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었다.

SBS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SBS 8시 뉴스의 같은 날 방송분을 보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김형직군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한미 정보 당국이 주시하던 곳”

“한미 정보당국은 대포동 1, 2호 미사일 발사기지가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99년과 2000년 미국 정찰위성에 의해 노동 1호 미사일 20여기가 포착”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곳과 가까운 백두산 기슭에 최근 지하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군사 시설 간 연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기지가 김형직군에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관련 사고 가능성이 좀 더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3차 6자회담 때처럼 회담전략을 위해 4차회담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를 준비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

“사고 발생일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9일이라는 점에서 위력과시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

등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시켰고 또 그 대부분을 군사적으로 연관시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 방송3사의 뉴스는 확실한 정보도 없이 량강도에서의 폭발사건을 하나같이

군사적으로 연관시키거나 자작극으로 추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댐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라는 공식입장이 나왔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위성으로도 뚜렷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 결국 결과적으로우리의 방송 뉴스가 ‘오보’ 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오버’ 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자.

빛나간 경쟁을 선의의 경쟁으로

요샌 저녁 뉴스 시간이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뉴스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꾸며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뉴스의 흥미추구, 더 거슬러 올라가 재미를 의식한 시청률 경쟁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보여지는 재미추구의 시청률 경쟁 관행이 뉴스 에게까지 그 손을 뻗친 것이다.

뉴스는 ‘재미’ 를 추구하는 오락 프로그가 아니다. 뉴스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공익성’ 이 추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한 영역이 ‘시청률 경쟁’ 으로 인해서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재미를 추구하려다 보니 자극적, 선정적으로 꾸며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공익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뉴스의 이러한 재미와 자극성에 의존하는 시청률 경쟁은 사회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뉴스 스스로의 위치를 깎아 내리는 행위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빛나간 경쟁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뉴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통감해야 한다. 방송에서 시청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뉴스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서까지 시청률을 쫓느라 본연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뉴스가 자기 반성없이 저러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계속하는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계속 자라나고 있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유영철’ 이 되어 그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뉴스는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뉴스가 쫓아야 하는 가치는 재미가 아니다.” 라는 방송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모아졌다면 그 다음으로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락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재미’ 에 달려 있다면 뉴스의 시청률은 ‘정확성, 신속성, 공정성’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들의 뉴스들이 ‘재미’ 가 아닌 ‘정확성, 신속성, 공정성’ 을 놓고 마음껏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시켜 주어야 한다. ‘룰’ 이 없는 게임은 거칠어 질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룰’ 을 만들고 감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또 이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우리 가장들로 하여금 집에서까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

로 가득찬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 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정신을 황폐화하게 하는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방송뉴스 까지 거들어서야 되겠는가? 바로 지금이 우리 뉴스의 자성이 필요한 때이다.

정확성도 챙기자.

뉴스에서 ‘신속성’ 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성’ 또한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뉴스의 요소이다. 여태껏 북한관련 보도에 있어서 우리 뉴스가 보여준 모습은 ‘신속성’ 에 눈이 멀어 ‘정확성’ 을 버리는 듯한 모습이였다.

뉴스의 생리상 ‘신속성’ 과 ‘정확성’ 은 반비례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성이 결여된 신속성은 성급함이다. 아무리 신속한 뉴스라 하더라도 정확성이 빠진 뉴스는 오보일 뿐이다. 더 이상 북한과 관련한 성급한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물론 북한관련 보도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면 힘든대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까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 어설픈 정보량을 가지고 추측을 하려하니 항상 결과가 어설픈게 빛나갔던 것이 아닌가?

뉴스는 스스로가 저러한 ‘오보’ 와 비슷한 ‘오버’ 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실보도’ 가 아닌 단지 ‘추측’ 이었으니 결과가 빛나가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어제오늘이 다르게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가 바로 남북관계이다. 또 남북관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 방송의 무책임한 북한관련 추측보도는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처럼 남북관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치면서..

나는 우리 뉴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뉴스를 비평하였다. 하지만 결코 ‘비난’은 아니었다. 우리 뉴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더 좋은 뉴스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언론인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뉴스가 이러이러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마음을 내보인 것 뿐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뉴스가 자극적인 표현과 화면으로 눈과 귀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뉴스가 마음대로 내려버리는 결론 역시 원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자녀의 눈을 가리게 하는 뉴스가 아닌 오히려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교육적 뉴스, 추측으로 어설픈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시청자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뉴스, 사회가 각박해져 갈 때 그 각박함을 더욱 부각시키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갈 길을 제시해 주는 뉴스, 그러한 뉴스를 우리 시청자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방송뉴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한 그러한 뉴스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고질병화 되어버린 문제점들을 벗고 변화를 꾀하여야 할 때이다.

모든 병의 치유는 환자 스스로의 낮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우선 우리 방송 뉴스가 스스로 그러한 고질병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고 또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면 대한민국 방송뉴스는 지금보다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시청자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뉴스의 건전한 변화를 기대하며 비평문을 마친다.